

신약성경 목록순서

배종열 (개신대학원대학교/신약신학)



이 논문의 목적은 신약목록순서와 관련된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연구 질문이 있다. 첫째, 초대교회가 신약목록의 유일한 한 가지 순서를 가지고 있었는가? 많은 신약목록배열들이 전체적인 측면과 부분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될 것이다. (1)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신약의 여섯 구분(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히브리서, 공동서신, 요한계시록)의 배열은 10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2) 부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각 부분 안에서 신약 각권의 배열은 많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런 신약목록들의 분류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에는 다양한 목록배열이 존재했고 현재 보편적으로 쓰는 신약목록순서는 대성경(Great Bible, 1539), 벨직신앙고백서(Belgic Confession, 1561)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1647)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보편적인 신약목록순서는 어떤 원칙이 있는가? 그 순서에는 세 가지 단계와 기준이 있다. (1) 장르 분류이다. 이 단계에서는 장르들이 시간적 순서라는 기준으로 배열된다. (2) 장르 안에서 특징적 분류이다. 이 단계에서는 특징적 분류들이 다선소후(多先小後, 분량이 많으면 앞에, 적으면 뒤에)라는 기준으로 배열된다. (3) 특징적 분류 안에서 각권 배열이다. 이 단계에서는 다선소후와 단선복후(單先複後, 단 권은 앞에, 여러 권[예, 전서와

후서, 일서와 이서와 삼서 등은 뒤에)의 기준으로 분류된다. 현재 보편적 신약목록순서는 체계적인 기준으로 배열되어 있다.

주제어: 신약목록순서, 신약목록순서의 유형, 신약목록순서의 원칙, 대영번성경,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I. 서론

벨직신앙고백서(Belgic Confession, 1561)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1647)에는 신약성경 27권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다. 그 목록순서는 크게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이다.¹ 다만 벨직신앙고백서에서는 히브리서를 바울서신으로 구분하는 반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는 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 목록순서는 보편적이어서 현대 대다수 번역성경들도 이 순서를 따르고 있다. 영어번역성경인 KJV(1611), ERV(1881/85), RSV(1946/1952), TEV(1966/76), NIV(1973/78), ESV(2001), 그리고 대한성서공회가 발행한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52),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 그리고 한국성경공회가 발행한 『바른성경』(2007)에도 순서가 같다. 신약 목록순서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 벨직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에 제시된 신약목록순서(이하 ‘두 신앙고백서의 신약목록순서’라 함)는 처음부터 있었던 ‘원래의 신약목록순서’와 다르다고 주장한다.² 특히 서신서에서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원래는 공동서신이 먼저고 바울서신이 나중이었으나, 후대에는 바울서신이 먼저고 공

¹ 『벨직신앙고백서』, 제4장;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제1장 2절.

² F. R. Coulter, ed., *The New Testament in its Original Order: A Faithful Version with Commentary* (Hollister: York Publishing Company, 2004), xxxv-xxxvi. 쿨터는 원래의 목록순서는 두 신앙고백서의 신약목록순서와 달리 복음서, 사도행전, 공동서신, 바울서신,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주장에 따라 신약목록순서들 배열하여 신약성경을 발행했다.

동서신이 나중으로 바뀌었다는 말이다. 신약목록순서가 원래부터 정해져 있었는데 후대에 이 목록순서를 변경하였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두 신앙고백서는 잘못된 신약목록순서를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보편적으로 쓰이는 신약성경들도 잘못된 신약목록순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두 신앙고백서의 목록순서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질문들이 뒤따른다. 첫째, 두 신앙고백서의 목록순서는 초대교회에서 명시적이나 암시적으로 동의한 원래의 신약목록순서와 다른가? 아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신약목록순서는 다양해서 ‘원래의 신약목록순서’는 없었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 신약목록순서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전체적이고 부분적인) 분석하여 원래의 신약목록순서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둘째, 그러면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두 신앙고백서의 신약목록순서에는 어떤 원칙이 있는가? 분명한 세 단계의 원칙이 있다. 3장에서 이 원칙을 신약성경 각 권에 적용하여 설명할 것이다.

II. 신약목록순서의 종합적 분석

초대교회 당시 모두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원래의 신약목록순서가 있었는가? 그렇다면 두 신앙고백서에서 언급된 목록순서는 잘못 되었으므로 즉시 수정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약목록순서와 관련된 주요 자료들을 점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룰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³

³ B. M. Metzger, *The Canon of the New Testament: Its Origin, Development, and Significance*, 이정곤 역, 『신약정경형성사』,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6), 329-41; 장동수, 『신약 사본과 정경: 헬라어에서 한글까지』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284-92; L. M. McDonald, *Formation of the Bible: The Story of the Church's Canon*, 김주한 역, 『성경의 형성: 교회의 정경 이야기』, (서울: 솔로몬, 2015), 273-82; L. M. McDonald, J. A. Sanders, eds., *The Canon Debate* (Peabody, Massachusetts: Hendrickson, 2002), 585-97. 성경목록순서와 관련된 자료들 가운데 정경목록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정경목록순서로는 의미가 없는 자료들은 제외한다. 예를 들면, 에우세비우스(Eusebius, 260/65년경-339)는 정경목록을 언급할 때 인정된 책, 의심스러운 책, 거부된 책, 이단이 인용한 책 등으로 나누어서 목록을 제시한다. Eusebius, *The Ecclesiastical History*, 임성옥 역, 『교회사』 (서울: 은성, 1990), 3.25.1-7. 이것은 정경의 여부를

(1) 주요 사본의 정경목록: 체스터버티 사본(Chester Beatty, 약 200), 시나이티쿠스 사본(Codex Sinaiticus, 4세기), 바티카누스 사본(Codex Vaticanus, 4세기), 알렉산드리누스 사본(Codex Alexandrinus, 5세기), 클로라몬트 사본(Codex Claromontanus, 6세기)

(2) 2-7세기 주요 정경목록: 말시온 정경(The Canon of Marcion, 약 140), 무라토리 정경(The Muratorian Canon, 2세기), 라오디게아 종교회의(Laodicea Synod, 363), 아타나시오스(Athanasius of Alexandria, 367), 에피파니오스(Epiphanius, 약 374-377), 그레고리오스(Gregory of Nazianzus, 약 390), 아프리카 정경(African Canon, 약 393-419), 루피누스(Rufinus, 약 394), 히에오니무스(Jerome, 약 394),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 약 395-400), 암필로키오스(Amphilocheus, 약 396), 카르타고 종교회의(Carthage Synod, 397), 인노켄티우스(Innocent, 약 405), 겔라시오스(Decree of Gelasius, 약 550), 유닐리우스(Junilius, 약 551), 이시도루스(Isidore, 약 600)

(3) 근대 주요 정경목록: 틴데일성경(Tyndale's Translation, 1525), 대성경(The Great Bible, 1539)

신약목록순서에 대한 자료를 다루면서 다음 네 가지를 고려할 것이다. 첫째, 신약목록 가운데 일부가 빠졌거나 유실되어 없는 경우(예, 말시온 정경 등) 그 목록의 권 명이나, 또한 외경이 포함된 경우(예, 무라토리 정경 등) 그 외경의 권 명을 무시하고 넘어갈 것이다. 이것은 신약정경의 자료 자체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둘째, 초대교회에서는 없었지만 후대에 사용한 용어들을 필요하면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것은 현재 독자들을 기준으로 설명하기 위함이다. 셋째, 두 신앙고백서의 신약목록순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이것은 두 신앙고백서의 신약목록순서가 현재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신약 27권을 사도행전, 바울서신, 히브리서, 공동/일반서신, 요한계시록 등 여섯 단위로 나누어서 설명할 것이다.

이제 신약목록순서의 자료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자. 이것은 전체적인 측면과 부분적인 측면이 있다. 전체적인 측면은 신약목록순서에서 전체적인 틀의 순서를 보는 것이고, 부분적인 측면은

언급한 것이지 정경목록순서를 말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에우세비오스의 목록은 인용하지 않는다.

그 전체적인 틀 안에서 각 권의 순서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자료들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 전체적인 측면

먼저 신약목록순서의 전체적인 측면을 보자. 이것은 신약 목록순서의 전체적인 틀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전체적인 틀에 대한 체계적인 유형별 분류 연구가 거의 없어서⁴ 필자는 위에서 제시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것이다. 이 유형의 분류는 필자가 논의를 위해 임의로 분류한 것이다.

〈신약목록순서의 유형〉

유형			목록순서				자료	
A 유형			행	공동서신	바울(히)서신		바티카누스 사본, ⁵ 알렉산드리누스, ⁶ 아타나시오스, ⁷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⁸	
B 유형	1	a	행	바울서신(히)	공동서신	계	암필로키오스 ⁹	
		b	행	바울서신	히	공동서신	계	아프리카 정경, ¹⁰ 카르타고 종교회의 ¹¹
		c	행	바울서신(히) 또는 바울서신, 히		공동서신	계	대성경 ¹²
	2	행	바울서신		공동(히)서신	계	틴데일성경 ¹³	
	3	행, 계	바울(히)서신		공동서신		유닐리우스 ¹⁴	
	4	행	바울서신	히, 계	공동서신		겔라시오스 ¹⁵	
	5		바울(히)서신	행	공동서신	계	시나이티쿠스 사본, ¹⁶ 에피파니오스 ¹⁷	
	6		바울서신(히)		공동서신	행, 계	히에오니무스, ¹⁸ 아우그스티누스, ¹⁹ 인노첸티우스, ²⁰ 이스도루스 ²¹	
	7		바울서신		공동서신	계, 행	클라로몬트 사본 ²²	

범례. (1) 바울(히)서신, 공동(히)서신: 히브리서가 바울서신이나 공동서신 가운데 배열되어 있다는 뜻임.

(2) 바울서신(히): 히브리서가 바울서신 끝에 배열되어 있다는 뜻임

⁴ 맥 레이는 히브리서의 위치를 여러 문헌들을 통하여 검토하고 있으나 신약의 다른 책들에 대하여는 생략한다. J. McRay, *Paul: His Life and Teaching*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3), 280.

5 바티카누스 사본에는 딤편, 딤후, 딤, 몬, 계 등 5권을 제외하고 신약 22권이 다음과 같이 배치되어 있다. 마, 막, 눅, 요; 행; 약, 베전, 베후, 요일, 요이, 요삼, 유; 롬, 고전, 고후, 갈, 엡, 빌, 골, 살전, 살후, 히. 5권이 없지만 나머지 권들은 알렉산드리누스 사본의 순서가 같다.

6 알렉산드리누스 사본에는 신약 가운데 몇 권의 일부 내용이 유실되었으나 27권이 다음과 같이 배열되어 있다. 마, 막, 눅, 요; 행; 약, 베전, 베후, 요일, 요이, 요삼, 유; 롬, 고전, 고후, 갈, 엡, 빌, 골, 살전, 살후, 히, 딤편, 딤후, 딤, 몬, 계.

7 아타나시오스 목록에는 신약 27권이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다. 복음서: 마, 막, 눅, 요; 행; 공동서신: 약, 베전, 베후, 요일, 요이, 요삼, 유; 바울서신(14): 롬, 고전, 고후, 갈, 엡, 빌, 골, 살전, 살후, 히, 딤편, 딤후, 딤, 몬, 계.

8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의 목록에는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신약 26권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복음서: 마, 막, 눅, 요; 행; 공동서신(7): 약, 베전, 베후, 요일, 요이, 요삼, 유; 바울서신(14): 롬, 고전, 고후, 갈, 엡, 빌, 골, 살전, 살후, 히, 딤편, 딤후, 딤, 몬. 요한계시록을 제외하면 이 자료의 목록순서가 아타나시오스 목록순서와 같다.

9 알필로키오스 목록은 신약 27권을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복음서(4): 마, 막, 눅, 요; 행; 바울서신(14): 롬, 고전, 고후, 갈, 엡, 빌, 골, 살전, 살후, 히, 딤편, 딤후, 딤, 몬; 공동서신(7): 약, 베드로서(sic), 요한서(sic), 유; 계. 하지만 히, 베후, 요이, 요삼, 유, 계 등 6권이 처음부터 확실하게 들어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McDonald, Sanders, eds., *The Canon Debate*, 594).

10 아프리카 정경은 신약 27권을 다음과 같이 알려준다. 복음서(4); 행; 바울서신(13); 히; 베전, 베후, 요일, 요이, 요삼, 약, 유; 계. 복음서와 바울서신의 각 권 명은 생략되어 있다.

11 카르타고 종교회의의 목록은 신약 27권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복음서(4); 행; 바울서신(13); 히; 베전, 베후, 요일, 요이, 요삼, 약, 유; 계.

12 대성경은 신약 27권을 다음과 같이 배열한다. 이 신약목록순서가 두 신앙고백서의 신약목록순서와 같은 역사상 최초의 목록순서이다(장동수, 『신약 사본과 정경: 헬라어에서 한글까지』, 291-92). 대성경에는 히브리서가 어느 장르에 분류되어 있는지 언급이 없다.

13 틴테일성경은 신약 27권을 다음과 같이 배열한다. 마, 막, 눅, 요; 행; 롬, 고전, 고후, 갈, 엡, 빌, 골, 살전, 살후, 딤편, 딤후, 딤, 몬; 베전, 베후, 요일, 요이, 요삼, 히, 약, 유; 계. 이 목록순서 가운데 마지막 네 권의 순서는 루터성경의 목록순서를 따른 것이다(A. B. du Toit, *The Canon of the New Testament*, 권성수 역, 『성경정경론』, (서울: 엠마오, 1988), 317; 장동수, 『신약 사본과 정경: 헬라어에서 한글까지』, 291). 이것은 틴테일이 영국에서 성경을 번역할 수 없어서 독일에 건너가 루터를 만났고, 독일에선 성경을 번역한 것(L. Stone, *The History of the Bible*, 홍병룡 역, 『성경번역의 역사』 (서울: 포이에마, 2011), 154-55)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4 유닐리우스의 목록에는 요한삼서를 제외하고 신약 26권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복음서: 마, 막, 눅, 요; 행; 계; 바울서신(14): 롬, 고전, 고후, 갈, 엡, 빌, 골, 살전, 살후, 딤편, 딤후, 딤, 몬, 히; 약, 베전, 베후, 유, 요일, 요이.

15 겔라시오스의 목록에는 야고보서를 제외하고 신약 26권이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복음서: 마, 막, 눅, 요; 행; 바울서신(14): 롬, 고전, 고후, 엡, 살전, 살후, 갈, 빌, 골, 딤편, 딤후, 딤, 몬, 히; 계; 베전, 베후, 요일, 요이, 요삼, 유.

16 시나이투쿠스 사본에는 신약 27권이 다음과 같이 배열되어 있다. 마, 막, 눅, 요; 행; 롬, 고전, 고후, 갈, 엡, 빌, 골, 살전, 살후, 히, 딤편, 딤후, 딤, 몬; 행; 약, 베전, 베후, 요일, 요이, 요삼, 유; 계.

17 에피파니오스의 목록은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신약 26권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복음서(4); 바울서신(13); 행; 공동서신: 약, 베드로서(sic), 요일, 요이, 요삼, 유; 계. 이 목록에는 히

신약목록순서의 전체적인 틀에 대한 유형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지적하겠다. 첫째, 신약목록순서와 관련된 주요 자료들 가운데 신약 27권이 모두 다 있지 않더라도 특정 유형에 분류된 자료들도 있다. 큰 틀을 설명하는데 무리 없으면 유형의 예시로 제시한다. 예를 들면, 바티카누스 사본에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요한계시록 등 5권이 없지만 A 유형에,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의 목록에는 요한계시록이 없지만 A 유형에, 유닐리우스 목록에는 요한삼서가 없지만 B-3 유형에, 에피파니오스 목록에는 히브리서가 없지만 B-5 유형에, 인노켄티우스 목록에는 히브리서가 없지만 B-6 유형에, 클라로몬트 사본에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히브리서 등 4권이 없지만 B-7 유형에 각각 분류되어 있다.

둘째, 신약목록순서와 관련된 주요 자료들 가운데 신약 27권이 모두 다 있지 않아서 특정 유형에 분류하지 않은 자료들도 있다. 말시온 정경은²³ 신약 11권만, 무라토리 정경은²⁴ 신약 20권만, 체스터비티 사본은²⁵

브리서가 없지만 이 목록을 시나이티쿠스와 같은 유형에 둔 것은 목록순서가 같기 때문이다.

¹⁸ 히에오니무스 목록에는 신약 27권이 언급된다. 주님의 소유 넷: 마, 막, 눅, 요; 바울서신(14): 롬, 고전, 고후, 갈, 엡, 빌, 살전, 살후, 골, 딤펬전, 딤펬후, 딤펬, 몬, 하; 벤전, 벤후, 요일, 요이, 요삼, 유, 약, 행; 계.

¹⁹ 아우구스티누스 목록은 신약 27권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복음서(4): 마, 막, 눅, 요; 바울서신(14): 롬, 고전, 고후, 갈, 엡, 빌, 살전, 살후, 골, 딤펬전, 딤펬후, 딤펬, 몬, 하; 벤전, 벤후, 요일, 요이, 요삼, 유, 약, 행; 계.

²⁰ 인노켄티우스 목록은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신약 26권을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복음서(4); 바울서신(13); 요일, 요이, 요삼, 벤전, 벤후, 유, 약, 행; 계. 이 목록은 히브리서를 제외하면 이시도루스의 목록순서와 비슷하다.

²¹ 이시도루스 목록은 신약 27권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복음서: 마, 막, 눅, 요; 바울서신(14): 롬, 고전, 고후, 갈, 엡, 빌, 살전, 살후, 골, 딤펬전, 딤펬후, 딤펬, 몬, 하; 요일, 요이, 요삼, 벤전, 벤후, 유, 약, 행; 계.

²² 클라로몬트 사본에는 빌, 살전, 살후, 히 등 4권을 제외하고 신약 23권을 담고 있다. 마, 요, 막, 눅; 롬, 고전, 고후, 갈, 엡, 딤펬전, 딤펬후, 딤펬, 골, 몬; 벤전, 벤후, 약, 요일, 요이, 요삼, 유; 계; 행. 이 목록에는 특별히 히브리서가 없어서 히브리서를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다른 독특한 형태가 있다. 그것은 사도행전이 끝에 배열되어서 요한계시록과 사도행전으로 끝난다는 점이다.

²³ 말시온 정경에는 신약성경 가운데 11권이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눅, 갈, 고전, 고후, 롬, 살전, 살후, 엡(= 라오디게아서), 골, 빌, 몬.

²⁴ 무라토리 정경에는 신약성경 가운데 20권이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눅, 요; 행; 고전, 고후, 엡, 빌, 골, 갈, 살전, 살후, 롬, 몬, 딤펬전, 딤펬후; 유, 요일, 요이; 계. 이 목록의 때를 2세기가 아니라 4세기(350-375)로 보는 주장에 대하여는 G. M. Hahneman, "Muratorian Fragment

신약 17권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자체 권수가 턱 없이 부족하여 전체적인 틀의 유형으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그레고리오스는²⁶ 신약 가운데 26권을 제시하지만 요한계시록이 없다. 요한계시록의 위치를 복원한다면 그 경우의 수가 다양하여 한 가지 특정한 유형에 분류하기는 어렵다. 루피누스는²⁷ 신약 27권임과 바울서신이 14권(히브리서 포함)임을 밝히되 바울서신의 순서와 히브리서의 위치를 제시하지 않아서 특정 유형에 분류할 수 없다. 이 자료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유형의 예로서는 제외됐으나 논의에서 필요시 부분적으로 이 자료들을 활용할 것이다.

이제 각 유형을 살펴보자. 유형은 크게 A 유형과 B 유형으로 나뉜다. A 유형은 공동서신이 바울서신 앞에 나오고, B 유형은 바울서신이 공동서신 앞에 나온다. A 유형은 한 가지이고 B 유형은 아홉 가지나 되어 총 열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A 유형 순서는 복음서, 사도행전, 공동서신, 바울(히)서신, 요한계시록이다. 이 유형에는 바티카누스 사본, 알렉산드리누스 사본, 아타나시오스,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등이다. 이 유형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1) 공동서신이 바울서신보다 앞에 배치되어 있다. (2) 히브리서가 바울이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하 ‘바울의 교회서신’이라고 함)과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하 ‘바울의 개인서신’이라고 함) 사이에 있다. 특히, 아타나시오스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는 히브리서를 바울서신임을 명시적으로 나타낸다.

둘째, B-1a 유형은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히), 공동서신, 요한계시록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B 유형에 속하는 유형들은 바울서신이 공동서신 보다 앞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히브리서가 바울서신에 속하여 바울서신 끝에 위치한다. 이 유형에는 암필로키오스가 있다.

and the Origins of the New Testament Canon,” In L. M. McDonald and J. A. Sanders, eds., *The Canon Debate*, 407-408.

²⁵ 체스터비티 사본은 신약 가운데 17권을 다음과 같이 담고 있다. 마, 막, 눅, 요; 행; 롬, 히, 고전, 고후, 엡, 갈, 빌, 골, 살전, 살후, 몬, 계.

²⁶ 그레고리오스의 목록은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신약 26권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마, 막, 눅, 요; 행; 바울서신(14); 공동서신(7): 약, 벧전, 벧후, 요일, 요이, 요삼, 유.

²⁷ 루피누스의 목록은 신약 27권을 다음과 같이 알려준다. 복음서(4): 마, 막, 눅, 요; 행; 바울서신(14): 벧전, 벧후, 약, 유, 요일, 요이, 요삼, 계. 바울서신의 각 권 명이 생략되었다.

셋째, B-1b 유형은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히브리서, 공동서신, 요한계시록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 유형에서는 바울서신을 13권으로 명시하고, 히브리서를 바울서신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유형에는 아프리카 정경과 카르타고 종교회의가 있다.

넷째, B-1c 유형은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히) 또는 바울서신, 히브리서, 공동서신, 요한계시록으로 나열되어 있다. 이 유형은 히브리서가 바울서신인지 아닌지는 보여주지 않고 히브리서의 위치만을 알려준다. 히브리서가 바울서신 끝이나 바울서신 다음에 놓여있다. 이 유형에는 대성경이 있다.

다섯째, B-2 유형의 순서는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공동(히)서신, 요한계시록이다. 이 유형의 특징은 히브리서가 공동서신 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유형에는 틴테일성경이 있다.

여섯째, B-3 유형은 복음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바울(히)서신, 공동서신으로 배열한다. 이 유형은 요한계시록이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사이에 등장한다. 이 유형에는 유닐리우스가 있다.

일곱째, B-4 유형은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공동서신으로 나열한다. 이 유형의 특징은 요한계시록이 히브리서와 공동서신 사이에 나온다는 점이다. 이 유형에는 겔라시오스가 있다.

여덟째, B-5 유형은 복음서, 바울(히)서신, 사도행전, 공동서신, 요한계시록 순서로 나열한다. 이 유형에 따르면 히브리서가 바울서신 가운데 그리고 사도행전이 바울서신과 공동서신 사이에 각각 배열되어 있다. 이 유형에는 시나이티쿠스 사본과 에피파니오스가 있다.

아홉째, B-6 유형은 복음서, 바울서신(히), 공동서신,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으로 배열한다. 이 유형의 특징은 사도행전이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 사이에 있다는 것과 히브리서를 바울서신으로 본다는 점이다. 이 유형에는 히에오니무스, 아우구스티누스, 이시도루스, 인노켄티우스 등이 있다. 물론 인노켄티우스는 바울서신이 13권이라고 하고, 히브리서가 없지만 사도행전이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 사이에 있어서 이 유형의 사례로 둔다.

열째, B-7 유형은 복음서, 바울서신, 공동서신, 요한계시록, 사도행전으로 배열한다. 이 유형의 특징은 사도행전이 맨 끝에 있다는 점이다. 이 유형에는 클라로몬트 사본이 있다.

신약목록순서의 열 가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A 유형은 공동서신이 바울서신 앞에 오지만 B 유형은 바울서신이 공동서신 앞에 온다. (2) A 유형은 단일 유형이지만 B 유형은 아홉 가지나 된다. (3) B 유형에서 사도행전은 복음서나 바울서신이나 공동서신이나 요한계시록 바로 뒤에 각각 올 수 있다. (4) B 유형에서 히브리서는 바울서신 가운데나 바울서신 뒤에나 공동서신 가운데 각각 올 수 있다. (5) B 유형에서 요한계시록은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나 공동서신이나 맨 뒤(공동서신, 행, 계)에 각각 올 수 있다.

2. 부분적인 측면

다음으로 신약목록순서의 부분적인 측면을 보자. 신약목록을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바울서신, 히브리서, 일반서신), 요한계시록 등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첫째, 복음서의 순서이다. 여기에는 동방교회의 목록순서와 서방교회의 목록순서가 있다.²⁸

〈복음서의 순서〉

	동방교회 순서	서방교회 순서	
	마, 막, 눅, 요	마, 요, 눅, 막	마, 요, 막, 눅
주요 사본	체스터비터, 시나이티쿠스, 바티카누스, 알렉산드리누스	베자, 워싱턴	클라로몬트
2-7세기 목록	라오디게아 종교회, 아타나시오스, 그레고리오스, 루피누스, 히에오니무스, 아우구스티누스, 암필로키오스, 겔라시오스, 유닐리우스, 이시도루스		
근대 목록	틴데일성경, 대성경		

²⁸ 복음서 순서의 다른 경우의 수에 대하여는 Metzger, 『신약정경형성사』, 317-18을 참조하라.

서방교회는 복음서의 처음 두 권에 대하여 이견이 없어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나오지만 나중 두 권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또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순서를 따른다. 서방교회의 복음서 목록 순서는 저자가 사도나 아니냐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²⁹ 사도들이 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앞에 두고 사도가 아닌 이들이 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뒤에 둔다. 하지만 동방교회는 두 신앙고백서의 신약목록순서와 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순서를 따른다. 동방교회의 복음서 목록순서는 기록 순서일 것으로 여긴다.³⁰ 이 순서를 따르는 자료는 A 유형(바티카누스 사본, 알렉산드리누스 사본, 아타나시오스,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B-1a 유형(암필로키오스), B-1c 유형(대성경), B-3 유형(유닐리우스), B-4 유형(겔라시오스), B-5 유형(시나이티쿠스 사본), B-6 유형(히에오니무스, 아우구스티누스, 이시도루스), 그레고리오스, 루피누스 등이다.

둘째,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의 위치는 다양하다.

〈사도행전의 위치〉

	복음서 뒤	바울서신 뒤	공동서신 뒤	요한계시록 뒤
주요 사본	체스터비티, 바티카누스, 알렉산드리누스	시나이티쿠스		클라로몬트
2-7세기 목록	무라토리 정경,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아타나시오스, 그레고리오스, 아프리카 정경, 루피누스, 암필로키오스, 카르타고 종교회의, 겔라시오스, 유닐리우스	에피파니오스	히에오니무스, 아우구스티누스, 인노켄티우스, 이시도루스	
근대 목록	텐테일성경, 대성경			

사도행전이 바울서신 뒤에 나오는 자료는 B-5 유형(시나이티쿠스 사본과 에피파니오스)이고, 공동서신 뒤에 나오는 자료는 B-6 유형(히에오니무스, 아우구스티누스, 인노켄티우스, 이시도루스)이고, 요한계시록 뒤

²⁹ B. M. Metzger,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강유중/장국원 공역, 『사본학』 (개정증보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65.

³⁰ du Toit, 『신약정경론』, 310.

에 나오는 자료는 B-7 유형(클라로몬트 사본)이다. 하지만 사도행전이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자료는 A 유형(바티카누스 사본, 알렉산드리누스 사본, 아타나시오스,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B-1a 유형(암필로키오스), B-1b 유형(아프리카 정경, 카르타고 종교회의), B-1c 유형(대성경), B-2 유형(틴데일성경), B-3 유형(유닐리우스), B-4 유형(겔라시오스), 무라토리 정경, 체스터비티 사본, 그레고리오스, 루피누스 등이다. 사도행전이 복음서 다음에 위치한 것이 다수이다.

셋째, 서신서이다. 서신서는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크게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으로 나눈다. 이 두 종류의 서신들 가운데 그 순서가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의 순서, 또는 공동서신과 바울서신의 순서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의 순서〉

	바울서신과 공동서신 순서	공동서신과 바울서신 순서
주요 사본	시나이티쿠스, 클라로몬트	바티카누스, 알렉산드리누스
2-7세기 목록	무라토리 정경, 에피파니오스, 그레고리오스, 아프리카 정경, 루피누스, 히에오니무스, 아우구스티누스, 암필로키오스, 카르타고 종교회의, 인노켄티우스, 겔라시오스, 유닐리우스, 이시도루스	아타나시오스,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근대 목록	틴데일성경, 대성경	

후자가 주장하는 근거는 사도들의 순서이다. 사도들 가운데 세 명은 “수 사도들”이지만 바울은 “사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이어서(고전 15:9) 공동서신이 앞에 나오고 바울서신이 뒤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³¹

그러나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첫째, 켈슨도 오히려 바울서신이 공동서신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는다. 그는 베드로후서 3:15-16를 근거로 바울이 성경기록의 주요인물이어서 바울서신이 앞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³² 성경의 표현을 따라 신약목록순서를 정한다

³¹ Metzger, 『신약정경형성사』, 316; du Toit, 『성경정경론』, 311.

³² I. L. Jensen, *Jensen's Survey of the New Testament* (Chicago: Moody Press, 1981), 25.

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둘째, 이 주장이 옳다면 목록순서의 모든 자료들에서 공동서신과 바울서신으로 순서가 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공동서신이 먼저 나오는 자료는 A 유형(바티카누스 사본, 알렉산드리누스 사본, 아타나시오스,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이다. 하지만 바울서신이 먼저 나오는 자료는 B-1a 유형(암필로키오스), B-1b 유형(아프리카 정경, 카르타고 종교회의), B-1c 유형(대성경), B-2 유형(틴데일성경), B-3 유형(유닐리우스), B-4 유형(겔라시오스), B-5 유형(시나이티쿠스 사본, 에피파니오스), B-6 유형(히에오니무스, 아우구스티스, 인노켄티우스, 이시도루스), B-7 유형(클라로몬트 사본), 무라토리 정경, 그레고리오스, 루피누스 등 다양하다. 분명한 것은 공동서신이 바울서신 앞서 와야 한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이다.

셋째, 바울서신의 순서를 살펴보자. 바울서신은 초대교회부터 바울의 교회서신과 개인서신으로 나뉜 것으로 보인다. 그 증거는 히브리서가 바울의 교회서신과 개인서신 사이에 배치된 것이다. 그 자료는 A 유형(바티카누스 사본, 알렉산드리누스 사본, 아타나시오스,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B-3 유형(유닐리우스), B-6 유형(히에오니무스, 아우구스티스, 이시도루스)이다. 적지 않은 자료들이 이것을 보여준다.

바울의 교회서신 순서는 매우 다양하다.

〈바울의 교회서신 순서〉

	두 신앙고백서와 같은 순서	롬, 히, 고전, 고후, 엡, 갈, 빌, 골, 살전, 살후	롬, 고전, 고후, 갈, 엡, 빌, 살전, 살후, 골	고전, 고후, 엡, 빌, 골, 갈, 살전, 살후, 롬	롬, 고전, 고후, 엡, 살전, 살후, 갈, 빌, 골	갈, 고전, 고후, 롬, 살전, 살후, 엡, 골, 빌
주요 사본	시나이티쿠스, 바티카누스, 알렉산드리누스	체스터비터				
2-7세기 목록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아타나시오스, 암필로키오스		히에오니무스, 아우구스티누스, 유닐리우스, 이시도루스	무라토리 정경	겔라시오스	말시온 정경
근대 목록	틴데일성경, 대성경					

체스터비티 사본은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보면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를 서로 바꾸고, B-3 유형(유닐리우스), B-6 유형(히에오니무스, 아우그스티스, 이시도루스)은 골로새서를 맨 뒤에, 무라토리 정경은 로마서를 맨 뒤에,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데살로니가전서 앞에 각각 놓는다. 또한 B-4 유형(겔라시오스)은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데살로니가후서 뒤에 배치한다. 말시온 정경의 바울서신에서 처음 네 권의 순서는 보편적인 순서와 역순이어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로 배열되어 있다. 하지만 A 유형(바티카누스 사본, 알렉산드리누스 사본, 아타나시오스,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B-1a 유형(암필로키오스), B-1c 유형(대성경), B-2 유형(틴데일성경), B-5 유형(시나이티쿠스 사본) 등은 두 신앙고백서의 신약목록순서와 일치한다.

바울의 개인서신 순서를 살펴본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바울의 개인서신 순서〉

	딤편, 딤후, 딴, 몬	몬, 딴, 딤편, 딤후
주요 사본	시나이티쿠스, 알렉산드리누스, 클라로몬트 ³³	
2-7세기 목록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아타나시오스, 히에오니무스, 아우구스티누스, 암필로키오스, 겔라시오스, 유닐리우스, 이시도루스	무라토리 정경
근대 목록	틴데일성경, 대성경	

무라토리 정경은 두 신앙고백서가 제시하는 신약목록순서의 역순이다. 하지만 두 신앙고백서의 신약목록순서와 일치한 자료는 A 유형(알렉산드리누스 사본, 아타나시오스,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B-1a 유형(암필로키오스), B-1c 유형(대성경), B-2 유형(틴데일성경), B-3 유형(유닐리우스), B-4 유형(겔라시오스), B-5 유형(시나이티쿠스 사본), B-6 유형(히에오니무스, 아우구스티스, 이시도루스) 등이다.

³³ 클라로몬트 사본에는 디도서와 빌레몬서 사이에 골로새서가 있다. 골로새서를 무시하면 클라로몬트 사본에 나오는 바울의 개인교회 순서가 두 신앙고백의 순서와 같다.

다섯째, 히브리서의 위치를 살펴보자.³⁴ 그 위치가 역시 다양하다.

〈히브리서의 위치〉

	바울서신과 공동서신 사이	바울의 교회서신과 개인서신 사이	로마서 뒤	요한삼서 뒤
주요 사본		시나이티쿠스, 알렉산드리누스	체스터비티	
2-7세기 목록	아프리카 정경, 히에오니무스, 아우구스티누스, 암필로키오스, 카르타고 종교회의, 겔라시오스, 유닐리우스, 이시도루스	아타나시오스,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근대 목록	대성경			틴데일 성경

히브리서가 로마서 다음에 놓인 것은 체스터비티 사본이고, 요한삼서 다음에 배치된 것은 B-2 유형(틴데일성경)이다. 틈데일성경은 루터성경의 순서를 따른 것이다. 히브리서가 바울의 교회서신과 개인서신 사이에 배치된 것은 A 유형(바티카누스 사본, 알렉산드리누스 사본,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B-5 유형(시나이티쿠스 사본)이다. 이것은 교회서신과 개인서신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히브리서가 바울서신과 공동서신 사이에 배열된 것은 B-1a 유형(암필로키오스), B-1b 유형(아프리카 정경, 카르타고 종교회의), B-1c 유형(대성경), B-3 유형(유닐리우스), B-4 유형(겔라시오스), B-6 유형(히에오니무스, 아우구스티누스, 이시도루스)이다.

여섯째, 공동서신의 순서를 살펴보자.³⁵ 그 순서 역시 다양하다.

³⁴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바울서신을 13권으로 명시한 자료는 B-1b 유형(아프리카 정경), B-5 유형(에피파니오스), B-6 유형(인노켄티우스)이다. 이와는 달리 히브리서를 포함하여 바울서신을 14권으로 명시한 자료는 A 유형(라오디게아 종교회의), B-1a 유형(암필로키오스), B-1b 유형(카르타고 종교회의), B-3 유형(유닐리우스), B-4 유형(겔라시오스), B-6 유형(히에오니무스, 아우구스티누스, 이시도루스), B-7 유형(클라로몬트 사본), 그레고리오스, 루피누스가 있다. 자료상으로 볼 때 히브리서의 저작성은 의견이 갈린 것으로 보이지만 바울 저작성에 무게가 실린다. 벨직신앙고백서가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로 간주하는 것은 이런 전통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³⁵ 공동서신의 순서는 갈라디아서 2:9에 나오는 사도들의 순서(야고보, 베드로, 요한)라는 주장(du Toit, 『성경정경론』, 311)은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문제가 발생한다. 만일 이 구절이 공동서신 배열에 대한 설명이면 유다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갈라디아서 2:9을

〈공동서신의 순서〉

	두 신앙고백서와 같은 순서	벤전, 벤후, 요일, 요이, 요삼, 유, 약	요일, 요이, 요삼, 벤전, 벤후, 유, 약	벤전, 벤후, 약, 요일, 요이, 요삼, 유	벤전, 벤후, 요일, 요이, 요삼, 약, 유	벤전, 벤후, 약, 유, 요일, 요이, 요삼	약, 벤전, 벤후, 유, 요일, 요이
주요 사본	시나이티쿠스, 바티카누스, 알렉산드리누스,			클라로몬트 사본			
2-7세기 목록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아타나시오스, 에피파니오스, 그레고리오스, 암필로키오스,	히에오니무스, 아우그스티누스	인노켄티우스, 이시도루스		아프리카 정경, 카르타고 종교회의	루피누스	유닐리우스 ³⁶
근대 목록	대성경				틴데일성경		

야고보서를 유다서 다음에 둔 자료는 B-6 유형(히에오니무스, 아우그스티스)이고, 베드로후서와 요한일서 사이에 둔 자료는 B-7 유형(클라로몬트 사본)이고, 요한삼서와 유다서 사이에 둔 자료는 B-1b 유형(아프리카 정경, 카르타고 종교회의)과 B-2 유형(틴데일성경³⁷)이다. 또한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베드로후서와 요한일서 사이에 둔 자료는 루피누스이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와 야고보서를 요한삼서 이후에 둔 자료는 B-6 유형(인노켄티우스, 이시도루스)이다. 유다서를 베드로후서와 요한일서 사이에 둔 자료는 B-3 유형(유닐리우스)이다. 하지만 대체로 두 신앙고백서의 신약목록순서를 따르는데 그 자료들은 A 유형(바티카누스 사본, 알렉산드리누스 사본, 아타나시오스,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B-1a 유

가지고 공동서신 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구절은 공동서신의 배열순서와는 무관해 보인다.

³⁶ 유닐리우스 목록에는 요한삼서가 생략되어 있지만 공동서신의 순서를 논의하는 데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것은 요한삼서가 요한일서 다음에 배열될 것이기 때문이다.

³⁷ 틴데일성경을 이 유형에 포함시킨 것은 히브리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틴데일성경 목록에는 요한삼서와 야고보서 사이에 히브리서가 있다.

형(암필로키오스), B-1c 유형(대성경), B-5 유형(시나이티쿠스 사본, 에피파니오스), 그레고리오스이다.

끝으로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요한계시록의 위치〉

	맨 끝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사이	히브리서와 공동서신 사이	맨 뒤에 있는 사도행전 앞
주요 사본	체스터비티, 시나이티쿠스, 알렉산드리누스			클라로몬트
2-7세 기 목록	무라토리 정경,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아타나시오스, 에피파니오스, 아프리카 정경, 루피누스, 히에오니무스, 아우구스티누스, 암필로키오스, 카르타고 종교회의, 인노켄티우스, 이시도루스	유닐리우스	겔라시오스	
근대 목록	틴데일성경, 대성경			

요한계시록이 B-3 유형(유닐리우스)에서는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사이에 놓이고, B-4 유형(겔라시오스)에서는 히브리서와 공동서신 사이에 배열되어 있고, B-7 유형(클라로몬트 사본)에서는 맨 끝에 나오는 사도행전 바로 앞에 배치되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맨 끝에 배열한 자료들은 A 유형(알렉산드리누스 사본, 아타나시오스,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B-1b 유형(아프리카 정경, 카르타고 종교회의), B-1c 유형(대성경), B-2 유형(틴데일성경), B-5 유형(시나이티쿠스 사본, 에피파니오스), B-6 유형(히에오니무스, 아우구스티누스, 인노켄티우스, 이시도루스), 체스터비티 사본, 무라토리 정경, 루피누스 등 다양하다.

신약목록순서를 전체적인 관점과 부분적인 관점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래의 신약목록순서는 처음부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신약목록배열은 열 가지 유형이 있다. 또한 부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같은 유형에 속한 자료들에서도 각 권들의 순서가 달라지기도 하고(예, B-6 유형의 자료들 가운데 공

동서신의 순서), 같은 유형에 속하지 않은 자료들에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 순서가 같기도 하다. 신약목록순서는 처음부터 유일하게 하나로 고정된 형태는 없었다. 현재 두 신앙고백서의 목록순서와 같은 것은 대성경의 목록순서이다.

Ⅲ. 신약목록순서의 원칙

그렇다면 두 신앙고백서가 제시하는 신약목록순서배열에는 어떤 원칙이 있는가? 이 분야에는 관심은 있었으나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바울서신의 배열기준은 “길이가 결정적인 요소”가³⁸ 결정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적용하면 바울서신뿐만 아니라 복음서와 공동서신에도 예외가 발생한다. 갈라디아서는 에베소서보다 분량이 적지만 앞에 나왔고, 복음서와 공동서신에서도 길이의 양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 좀 더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필자는 모든 신약목록의 배열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기준이 있음을 제안한다.

- (1) 장르별 분류: 27권을 장르별로 분류하고 그 장르들을 그 내용상 시간의 전개를 기준으로 배열한다.
- (2) 특징별 분류: 각 장르별 분류 안에서 특징별로 분류하여 분량으로 보아서³⁹ 다선소후(多先小後, 분량이 많으면 앞에, 적으면 뒤에)의 기준으로 배열한다.⁴⁰

³⁸ du Toit, 『신약정경론』, 311; Metzger, 『신약정경형성사』, 318; Jensen, *Jensen's Survey of the New Testament*, 25; J. Murphy-O'Connor, *Paul the Letter-Writer: His World, His Options, His Skills*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95), 120; H. Y. Gamble, “The New Testament Canon: Recent Research and the Status Quaestionis” In L. M. McDonald and J. A. Sanders, eds., *The Canon Debate*, 283; G. Goswell, “The Order of the Books of the New Testament,” *JETS* 53/2 (June 2010), 235.

³⁹ 신약사본을 필사하는 시대에는 책의 양을 따질 때 스티코이라는 행 또는 줄을 기준으로 삼았다. Metzger, 『신약정경형성사』, 319.

⁴⁰ 메츠거는 “점차 길이가 줄어드는 순서로 배열”하는 것은 고대 종교들의 문서에서 나

(3) 각 권: 특징별 분류 안에서는 위와 같은 다선소후를 기준으로 각 권을 배열하되 분량이 비슷할 때는 단선복후(單先復後, 단 권은 앞에, 여러 권예, 전서와 후서, 일서와 이서와 삼서 등은 뒤에)의 기준으로 배열한다.

첫째, 장르별 분류이다. 27권을 장르별로 분류하면⁴¹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계시록 등 네 가지다. 그 묶음들의 내용을 시간상 전개의 기준으로 배열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을 다루는 복음서를 먼저 놓고, 다음에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서 교회가 탄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서(사도행전)을 놓고, 이어서 이 교회나 개인들에게 보낸 서신들을 놓고, 마지막으로 계시록(요한계시록)을 놓는다.⁴²

둘째, 특징별 분류다. 장르별에서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은 단권들이다. 이 두 권은 장르 안에서 순서의 문제는 없다. 하지만 복음서와 서신서는 여러 권이어서 배열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것은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다시 그 특징별 세분이다.

복음서는 공관복음과 기타 복음으로 나눌 수 있다.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고,⁴³ 나머지는 요한복음이다. 따라서 다선소후의 기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긴 공관복음은 앞에, 그리고 짧은 요한복음은 뒤에 놓는다.

서신서는 바울서신, 비바울서신(히브리서, 공동서신)으로 세분할 수 있다. 바울서신은 서신서에서 바울이 발신인으로 나오는 서신서이고, 비바울서신은 그렇지 않은 서신서이다. 바울서신은 모두 13권이고, 비바울

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말한다. Metzger, 『신약정경형성사』, 318, 각주 5.

⁴¹ 신약 27권을 분류할 때 세 가지[W. G. Kümmel,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trans. H. C. Kee (Revised Edi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81), 5-7], 네 가지[J. G. Machen, *The New Testament : An Introduction to its Literature and History*, ed. W. J. Cook, 김효성 역, 『신약개론(상)』 (서울: 성광문화사, 1980), 20-23] 또는 다섯 가지[Metzger, 『신약정경형성사』, 315]로 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신약을 장르별로 분류할 때 네 가지 분류법을 따른다.

⁴² G. Goswell, "The Order of the Books of the New Testament," 225-26.

⁴³ 공관복음이라는 용어는 그리스바흐(J. J. Griesbach)가 18세기에 처음 썼지만(D. A. Carson, D. J. Moo, L. Morris,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노진준 역, 『신약개론』 (서울: 은성, 1993), 13], 이 개념은 2 세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 R. Beasley-Murray, "Synoptics and John,"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s*.

서신들은 히브리서와 공동서신 등 8권이다. 따라서 다선소후의 기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은 바울서신을 앞에 두고, 적은 비바울서신들은 뒤에 둔다.

또한 바울서신도 크게 교회서신과 개인서신으로 더 나눌 수 있다. 교회서신은 9권이고, 개인서신은 4권이다. 다선소후의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은 교회서신은 앞에, 그리고 개인서신은 뒤에 둔다.

셋째, 특징별 분류에서 각 권 순서이다. 특징별 분류의 대상은 공관복음, 바울의 교회서신, 개인서신, 비바울서신이 있다. 여기에는 다선소후와 단선복후의 기준을 따른다. (1) 공관복음의 순서를 확인하자. 공관복음을 더 세분하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인 누가복음과 그렇지 않은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있다. 이 경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앞에 두고 누가복음을 뒤에 둔다.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마태복음을 앞에 두고, 적은 마가복음을 뒤에 둔다. 따라서 복음서의 순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다.

(2) 바울의 교회서신 순서는 어떠한가? 교회서신에서⁴⁴ 분량이 많은 것은 979줄인 로마서이고, 다음은 908줄인 고린도전서와 607줄인 고린도후서이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뒤에 331줄인 에베소서과 나오고, 221줄인 빌립보서가 뒤따르며, 215줄인 골로새서가 이어진다. 그 뒤에는 207줄인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가 뒤따른다.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의 분량을 정확히 비교하면 로마서가 더 길다. 하지만 단순히 말하면 비슷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두 서신서의 분량을 비슷하게 받아들이면 여기에 단선복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단권인

⁴⁴ 바울서신 각 권의 장, 절, 단어의 수는 다음과 같다. 로마서는 16장 433절 7111단어이고, 고린도전서는 16장 437절 6829단어이고, 고린도후서는 13장 256절 4477단어이고, 갈라디아서는 6장 149절 2230단어이다. 에베소서는 6장 155절 2435단어이고, 빌립보서는 4장 104절 1629단어이고, 골로새서는 4장 95절 1582단어이다. 데살로니가전서는 5장 89절 1481단어이고, 데살로니가후서는 3장 47절 823단어이다. 디모데전서는 6장 113절 1591단어이고, 디모데후서는 4장 83절 1238단어이고, 디도서는 3장 46절 659단어이고, 빌레몬서는 1장 25절 335단어이다. Murphy-O'Connor, *Paul the Letter-Writer*, 121. 그러나 줄(스티코이)로 말하면 로마서는 979줄, 고린도전서는 908줄, 고린도후서는 607줄, 갈라디아서는 311줄, 에베소서는 331줄, 빌립보서는 221줄, 골로새서는 215줄, 데살로니가전서는 207줄, 데살로니가후서는 111줄, 디모데전서는 238줄, 디모데후서는 182줄, 디도서는 100줄, 빌레몬서는 44줄이다. Metzger, 『신약정경형성사』, 319.

로마서를 앞에 두고, 두 권을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뒤에 둔다.

문제는 갈라디아서이다. 311줄인 갈라디아서는 331줄인 에베소서 다음에 나와야 한다. 이런 순서를 따르는 자료는 B-4 유형(겔라시오스), 체스터비티 사본, 무라토리 정경이 있다. 하지만 두 신앙고백서의 목록순서대로 갈라디아서가 에베소서 앞에 배열되어 있는 자료는 A 유형(바티카누스 사본, 알렉산드리누스 사본, 아타나시오스,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B-1a 유형(암필로키오스), B-1c 유형(대성경), B-2 유형(틴데일성경), B-3 유형(유닐리우스), B-5 유형(시나이티쿠스 사본), B-6 유형(히에오니무스, 아우그스티스, 이시도루스), 말시온 정경 등으로 대다수이다. 갈라디아서가 에베소서 앞에 온 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다.

갈라디아서가 에베소서 앞에 나오는 것은 바울의 교회서신을 더 세분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주서신과 옥중서신의 개념이다. 물론 이 용어들은 후대에 나왔지만 이 개념들은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울의 주서신을 보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가 분산되어 나오는 자료는 B-4 유형(겔라시오스), 체스터비티 사본, 무라토리 정경이고, 한 묶음으로 나오는 자료는 A 유형(바티카누스 사본, 알렉산드리누스 사본, 아타나시오스,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B-1a 유형(암필로키오스), B-1c 유형(대성경), B-2 유형(틴데일성경), B-3 유형(유닐리우스), B-5 유형(시나이티쿠스 사본), B-6 유형(히에오니무스, 아우그스티스, 이시도루스), 말시온 정경⁴⁵이다. 바울의 교회서신을 주서신과 옥중서신으로 더 나누어 보니 양이 많은 주서신이 앞에 나오고, 상대적으로 양이 적은 옥중서신이 뒤에 나오게 되었다. 이 때문에 주서신에 속하는 갈라디아서가 옥중서신에 속하는 에베소서 보다 앞서 나오게 되었다.

또한 바울의 교회서신 가운데 옥중서신을 살펴보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분산되어 나오는 자료는 B-4 유형(겔라시오스), B-6 유형(히에오니무스, 아우그스티스, 인노켄티우스, 이시도루스), 체스터비티 사본이고, 연이어 나오는 자료는 A 유형(바티카누스 사본, 알렉산드리누

⁴⁵ 말시온 정경에서 주서신은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순으로 나열된다.

스 사본, 아타나시오스,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B-1a 유형(암필로키오스), B-1c 유형(대성경), B-2 유형(틴데일성경), B-5 유형(시나이티쿠스 사본), 말시온 정경,⁴⁶ 무라토리 정경 등 다양하다. 적지 않은 자료들이 이 세 편지를 옥중서신으로 보아 함께 묶은 것으로 보인다. 두 신앙고백서의 신약목록순서도 이를 따른 것이다.

(3) 바울의 개인서신 순서를 살펴보자. 디모테전서는 238줄이고, 디모테후서는 182줄이고, 디도서는 100줄이고, 빌레몬서는 44줄이어서 개인서신도 다선소후의 기준에 따라서 디모테전서와 후서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디도서가 오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가 온다.

(4) 비바울서신⁴⁷ 순서를 살펴보자. 4953단어인 히브리서는 상대적으로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서⁴⁸ 앞에 온다. 문제는 다음에 나오는 공동서신의 순서다. 공동서신의 편지분량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첫째, 단 권의 양을 기준으로 하면 269줄인 요한일서가 앞에 나오고, 247줄인 야고보서가 뒤를 잇고, 237줄인 베드로전서와 71줄인 유다서가 그 뒤따르게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순서는 신약목록순서의 자료에서 찾을 수 없다. 둘째, 한 이름으로 된 여러 권들을 합한 분량을 기준으로 삼으면⁴⁹ 순서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237 + 166 = 403줄), 요한일서와 요한이서와 요한삼서(269 + 32 + 31 = 332줄), 야고보서, 유다서이다. 이 순서를 따르는 자료는 B-1b

⁴⁶ 말시온 정경에서 옥중서신은 에베소서(=라오디게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순으로 배열된다.

⁴⁷ 비바울서신 각 권의 장, 절, 단어의 수는 다음과 같다. 히브리서는 13장 303절 4953단어이고, 야고보서는 5장 108절 1742단어이고, 베드로전서는 5장 105절 1684단어이고, 베드로후서는 3장 61절 1099단어이다. 요한일서는 5장 105절 2141단어이고, 요한이서는 1장 13절 245단어이고, 요한삼서는 1장 15절 219단어이고, 유다서는 1장 25절 461단어이다(Felix Just, "New Testament Statistics," n. d. <<http://catholic-resources.org/Bible/NT-Statistics-Greek.htm>> [5 January 2016]). 하지만 스티코이로 볼 때 히브리어는 243줄(sic), 야고보서는 247줄, 베드로전서는 237줄, 베드로후서는 166줄, 요한일서는 269줄, 요한이서는 32줄, 요한삼서는 31줄, 유다서는 71줄이다. Metzger, 『신약정경형성사』, 319-20.

⁴⁸ 야고보서가 1742단어인데 247줄이다. 히브리서는 4953단어인데도 243줄이라는 것은 계산상 오류인 것 같다. 따라서 히브리서의 분량기준은 줄보다는 단어수로 할 것이다.

⁴⁹ Metzger, 『신약정경형성사』, 321.

유형(아프리카 정경, 카르타고 종교회의), B-2 유형(틴데일성경)이다. 셋째, 다선소후와 단선복후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다선소후의 기준에 따라서 유다서는 맨 끝에 위치한다. 나머지는 분량이 비슷하니 단선복후의 기준을 따라서 단권인 야고보서가 앞에 나오고, 두 권인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가 그 뒤를 잇고, 세 권인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가 뒤 따른다. 이 순서를 다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순서로 된 자료는 A 유형(바티카누스 사본, 알렉산드리누스 사본, 아타나시오스,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B-1a 유형(암필로키오스), B-1c 유형(대성경), B-5 유형(시나이티쿠스 사본, 에피파니오스), 그레고리오스이다.

신약목록순서는 혼란스럽지 않다. 두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신약목록은 같은 분류된 장르들을 내용상 시간 전개를 기준으로 하고, 형식상 분량의 길이나 권수를 기준으로 배열되었다.

IV. 결론

초대교회 때부터 유일한 목록순서는 없었다. 오히려 다양한 목록순서가 존재했다. 그 전체적인 틀의 순서도 10가지 정도에 이른다. 또한 부분적인 장르별 순서의 종류를 따지만 그 경우의 수는 더욱 늘어난다. 다양한 신약목록순서 가운데서 두 신앙고백서(벨직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는 대영어성경의 목록순서를 따랐고, 이 목록순서가 보편화되었다.

두 신앙고백서가 제시한 신약목록 배열순서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 그것은 장르의 내용상으로는 시간적인 전개라는 기준이요, 형식상으로는 다선소후와 단선복후라는 기준이다. 이 기준들이 신약목록 순서배열에 체계적으로 적용되어 있다. 배열 원칙이 매우 체계적이다.

우리가 현재 보편적으로 쓰는 신약목록순서인 두 신앙고백서에 제시된 신약목록순서는 기존의 다른 신약목록순서보다 결코 부족함이 있지 않을 뿐더러 틀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체계적이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참고문헌

- 장동수. 『신약 사본과 정경: 헬라어에서 한글까지』.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 Beasley-Murray. G. R. "Synoptics and John."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s*.
- Carson, D. A., D. J. Moo, & L. Morris.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노진준 역. 『신약개론』. 서울: 은성, 1993.
- Coulter, F. R. ed. *The New Testament in its Original Order: A Faithful Version with Commentary*. Hollister: York Publishing Company, 2004.
- Du Toit, A. B. *The Canon of the New Testament*. 권성수 역. 『성경정경론』. 서울: 엠마오, 1988.
- Eusebius. *The Ecclesiastical History*. 임성옥 역. 『교회사』. 서울: 은성, 1990.
- Gamble, H. Y. "The New Testament Canon: Recent Research and the Status Quaestionis" In L. M. McDonald and J. A. Sanders, eds., *The Canon Debate*. Peabody. Massachusetts: Hendrickson, 2002: 267-94.
- Goswell, G. "The Order of the Books of the New Testament." *JETS* 53/2 (June 2010): 225-41.
- Hahneman, G. M. "Muratorian Fragment and the Origins of the New Testament Canon." In L. M. McDonald and J. A. Sanders, eds., *The Canon Debate*. Peabody. Massachusetts: Hendrickson, 2002: 405-15.
- Jensen, I. L. *Jensen's Survey of the New Testament*. Chicago: Moody Press, 1981.
- Kümmel, W. G.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Trans. H. C. Kee, Revised Edi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81.
- Machen, J. G. *The New Testament: An Introduction to its Literature and History*. Ed. W. J. Cook. 김효성 역. 『신약개론(상)』. 서울: 성광문화사, 1980.

McDonald, L. M. & J. A. Sanders, eds. *The Canon Debate*. Peabody. Massachusetts: Hendrickson, 2002.

McDonald, L. M. *Formation of the Bible: The Story of the Church's Canon*. 김주한 역. 『성경의 형성: 교회의 정경 이야기』. 서울: 솔로몬, 2015.

McRay, J. *Paul: His Life and Teaching*,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3.

Metzger, B. M. *The Canon of the New Testament: Its Origin, Development, and Significance*. 이정곤 역. 『신약정경형성사』.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6.

_____.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강유중/장국원 공역. 『사본학』. 개정증보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Murphy-O'Connor, J. *Paul the Letter-Writer: His World, His Options, His Skills*.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95.

Stone, L. *The History of the Bible*. 홍병룡 역. 『성경번역의 역사』. 서울: 포이에마, 2011.

Felix Just. "New Testament Statistics." n. d.

<<http://catholic-resources.org/Bible/NT-Statistics-Greek.htm>> (2016.01.05).

*Abstract***The Arrangement of the Books of the New Testament**

Bhae, Jhong-Yeo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issue concerning the order of the books of the New Testament. It has two research questions. First, did the early church have the only one arrangement of the books of the New Testament? Many lists of an arrangement of the New Testament will be explored in comprehensive analysis: overall aspect and partial aspect. (1) In the overall aspect, arrangements of the six main sections of the New Testament (Gospels, Acts, Pauline Epistles, Hebrews, Catholic/General Epistles, and Apocalypse) are classified into ten types. And (2) in the partial aspect, the arrangements within each section are categorized into many types. This study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existed various arrangements of the books in the early church, and the present universal arrangement of the books in the New Testament can be found in Great Bible (1539), Belgic Confession (1561) and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1647).

Second, what principle does the present universal arrangement of the books of New Testament has in it? The arrangement has three stages. And each stage has its criterion of arrangement. (1) The first stage is an genre classification of the New Testament. At this stage the genres are arranged by the criterion of a temporal order. (2) The second stage is an group classification within the genres. At this stage the groups are ordered by the criterion of decreasing length. (3) The third stage is an arrangement of each

book within the group classification. Each book within the groups is arranged by the criterion of decreasing length, with multiple volumes of the New Testament arranged after a single book of the New Testament.

Key-Words: Order of the Books of the New Testament, Types of the New Testament Lists, Principle of the New Testament List, Great Bibl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